

2017년 12월 24일, 대정읍 동일2리 동일2리경로당, 이현정 조사.
문희봉(여, 1942년생, 대정읍 동일2리)

- 줄거리: 대정읍 동일2리의 서통물 주변은 도깨비가 자주 출몰한다고 알려져 있다. 쌀개동산에는 쌀이라 불리는 도깨비불이 흔히 보이는 곳이다. 쌀은 쌀개동산에서 나타났다가 서쪽으로 사라지는데 비가 올 것 같은 날에 잘 보이며, 특히 봄에서 여름 사이에 자주 나타난다.

[조사자] 이 동네에 도체비 나낫덴 헷잖아예.

[제보자] 그렇지, 거 도체비 나낫어.

[조사자] 어디에, 잘 나는 데가 어딨꽈?

[제보자] 여, 서통물 어염에 그디서 도체비 나고 또 저 쪽에 제재소 있는 디 거기도 나고 또 저 앞동산에는 쌀, 쌀이영 해도 거 도체비는 아니고 것도 불은 번쩍번쩍 허긴 허는 거 닮아. 경 헌디 그거 쌀 낭 쌀개동산 쌀개동산 헤낫주게.

[조사자] 쌀이 낭 쌀개동산이엔 헨예?

[제보자] 응, 그건 쌀개동산.

[조사자] 불만 번쩍번쩍 헙니까?

[제보자] 몰라 것도 바찌바찌 허멍 불이 난덴은 헨게마는 우리도 어린 때 들은 말인디 그거는. 건 도체빈 아니라. 쌀은 또난 거라, 또난 거. 어디사 난 큰 어떻 구신추 룩 키 크고 헌 것고라 쌀이엔 헌 줄 아는데.

[조사자] 그신세엔 안 허고?

[제보자] 게매 그거 종류 닮아. 그신새엔 헌 소리, 것도 경 크덴 허주게. 경 헌디 쌀개, 쌀개, 쌀개동산 쌀개동산 헤그네. 불로 허영 그 쌀이 요 앞이 동산, 짓은 딜로 나그네 저 서쪽더레 가믄 사라진덴 허여. 저 서쪽더레 가믄 사라진덴 헤여.

[조사자] 그믄 보통 어떨 때 잘 난덴 헙니까?

[제보자] 날씨가 어떻 비나 오람직허믄 잘 나주기게.

[조사자] 계절은 상관 엇고마씨?

[제보자] 겨울엔 안 나지. 아맹헤도 장마에 봄에 그런 데 나지. 여름꺼지는 날 걸. 여름꺼지 비올 때 그뜬 때.

[조사자] 사람이영 씨름헌덴은 안 헙니까, 도체비는?

[제보자] 도체비는 씨름 안 해. 도체비 옛날 우린 듣기로는 도체비를 심엉 보면 옛날 여기 지금 밀짚모자 있잖아. 그추룩 헌 거라도 옛날은 그 털벙것, 벌립 그거. 심엉 보民 그거엔 허여. 그거엔 허곡 또시 말똥 쌌 거. 그런 것도 있고 경 현덴 허여.

[조사자]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는 도체비허곡 비슷한 걸 갖다가 쓸이엔 햇덴 말이지예.

[제보자] 쌀개, 쌀개, 쌀개동산 쌀개동산 헨. 우리 듣기로는 거기 와그네 것도 불이 바직 바직 허멍 도체비추룩 막 뭐 벌엿닥 뭐 헷닥. 도체비는 하나가 웨엿다가 뭐 일고 여답 개도 웨엿다가 막 헌덴 헨게게. 경 허곡 그거는 기냥 저 뭐 크곡 빠작빠작 허게 그 불꽃이 와작와작 나다그네 저쪽더레 강 사라진덴 허여.

[조사자] 불꽃 색깔은 뭔 색깔이엔 안 협디가?

[제보자] 빨간색일 테주, 아닌가.

[조사자] 빨간색일 거 닮아마씨?

[제보자] 응. 도체비도 빨간 거영 흐쓸 펴린 것도 들곡 했어. 도체비는. 경 헨 짹짜 갈라 지멍 거 여러 개 멘들다그네 또 어디 강 사라져 분덴게. 심엉 보면 옛날 어룬덜 심언 보니까 털벙것 그런 거 허곡 물똥 병뎅이 경 현덴 허메. 아무 것도 아닌 거 주게 거 구신도 아니라 그거는. 도체비는 구신은 아니주게.

[조사자] 그문 해꼬지 안 헤마씨, 사람덜한테.

[제보자] 도체비는 경 헌 말이 없어. 말은 홀려간덴 허기는 허지. 도체비도 사름 홀려간 덴 허긴 헌디. 헛것이 홀려가주. 경 도체비는. 헛것은 또나주게.

- 핵심어: 도체비(도깨비), 쌀, 쌀개동산, 불, 비, 장마, 밀짚모자, 말똥, 헛것(귀신), 털벙것 (털모자), 구신(귀신)